

만화 니시센보쿠 지역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이야기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의 모습이다.

다이센시의 어느 회사...



충실하게 보내고 있어 무척 즐겁다.



매일 매일 힘들지만,



내 이름은 마사루. 고향인 다이센시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며 열심히 살고 있다.



옛 추억 여행을 즐기고 있다.



몸이 지친 날에는 졸업 앨범을 펼쳐 보면서



오늘도 수고했군.

가리와의 큰줄다리기 역사적 사실

- 가리와는 큰줄다리기는 일설에 의하면, 지금으로부터 5백여 년 전인 무로마치 시대 때부터 전해져 내려온 풍습이라고 한다
- 1602(케이초 7년)
가리와는 지역에 무사 마을이 설치되면서 2일정과 5일정 등은 도마치(外町·백성이나 상인이 사는 곳)라 불림. 줄다리기 행사는 도마치의 행사로 전승됨.
 - 1656(메이레키 2년)
대화제로 8일정이 신설되어, 빛마을 2일정과 야벳마을 5일정이 남음.
 - 메이지 이후
무사 제도가 폐지되고, 도마치의 행사였던 큰줄다리기가 가리와는 지역 전체의 행사로 변해감.
 - 1957(쇼와 32년)
관광 사업의 일환으로 줄다리기 협력위원회를 발족함.
 - 1972(쇼와 47년)
가리와는 큰줄다리기 보존회를 발족하여, 일본 최대 규모라 불리는 큰줄다리기의 전통을 보존·계승하는 활동을 시작함.
 - 1983(쇼와 58년)
2월 22일, 아키타현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됨.
 - 1984(쇼와 59년)
1월 21일,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됨.
 - 1998(헤이세이 10년)
큰줄다리기는 매년 음력 1월 15일 밤에 개최되어 왔는데, 이 해부터 공휴일(건국기념일) 전날인 2월 10일 밤에 개최하게 됨.

파란 리트머스 종이를 뒀을 때,
색이 변하지 않는 건 중성이야.
그럼 붉게 반응하는 건 뭘까?

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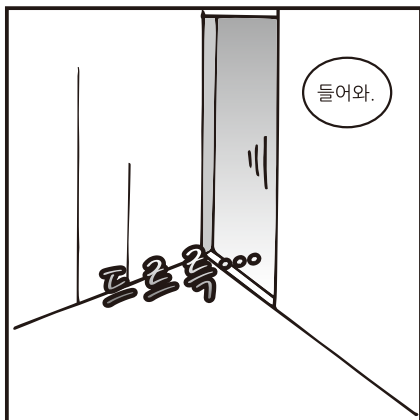
오, 마사루 빠르네.
대답해 봐.

《마사루》
초등학교
5학년

명랑하고
적극적인
성격이지만, 조금
덜렁덜렁.

간단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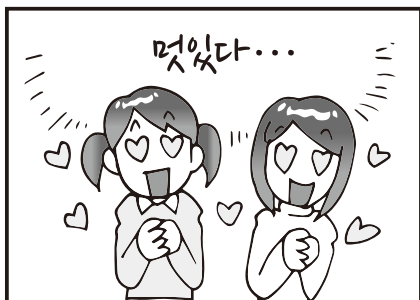




들어와.



음... 오늘은 너희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겠다.



멋있다...



자, 그럼 쇼의 자리는 어디 보자, 마사루의 옆에 앉도록 해!

오?



나는 마사루라고 해. 잘 부탁해!

응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도쿄에 있는 학교에서 전학 온 쇼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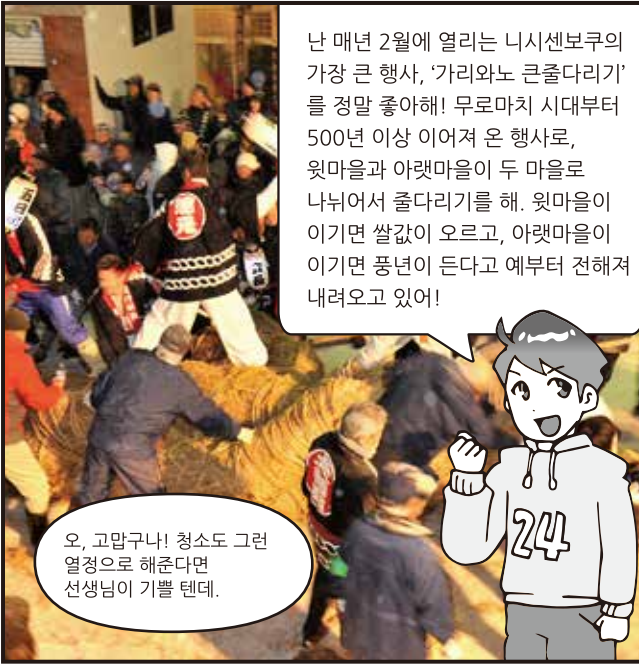
《쇼》
초등학교 5학년.
내성적이고 어른스러운 성격. 부모님의 전권으로 전학 오게 됐다.

니시센보쿠의 좋은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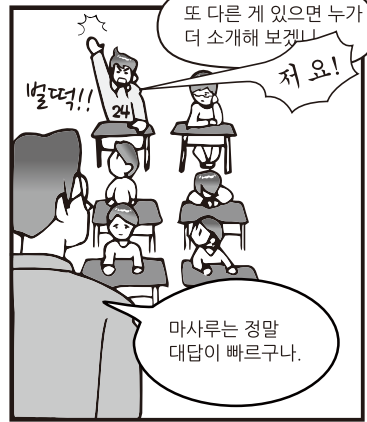
- 산과 강, 숲 등 풍부한 자연이 많다.
- 쌀과 채소, 산나물 등 맛있는 먹거리가 있다.
- 친절할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추천 명소는?

- 오사자와 공원
- 산복스기의 청수(淸水)
- 맛코스기 삼나무
- 고와쿠비 온천 쇼호엔
- 오사과고의 '암청수, 수청수' 등



난 매년 2월에 열리는 니시센보쿠의 가장 큰 행사, '가리와노 큰줄다리기'를 정말 좋아해! 무로마치 시대부터 500년 이상 이어져 온 행사로, 윗마을과 아랫마을이 두 마을로 나뉘어서 줄다리기를 해. 윗마을이 이기면 쌀값이 오르고, 아랫마을이 이기면 풍년이 든다고 예부터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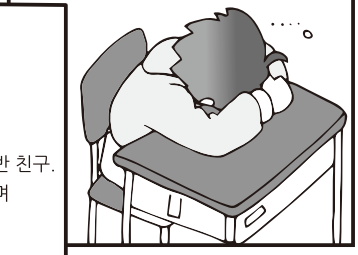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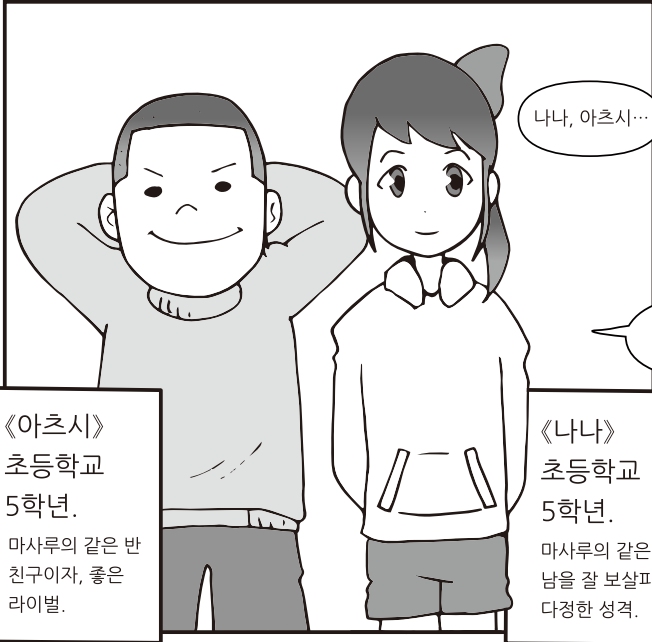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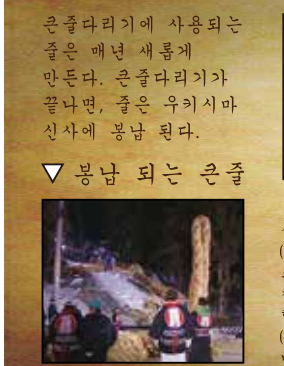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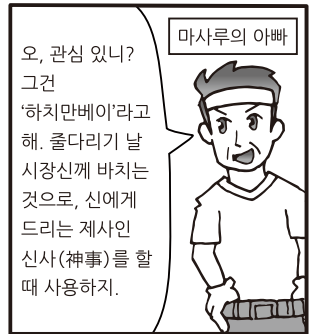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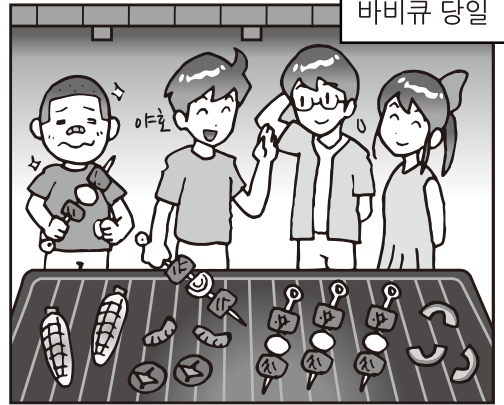
'가리와노'라는 지명의 유래에 관해서도 설명할게. '가리와노'는 '가니바(樺)'라는 나무가 많은 들판으로 원래는 '가니바노(樺野)'라고 불리고 있었어. 이후, 화재로 들판이 타버리는 바람에, 잎이 말라버렸다고 해서 '가레바노(枯葉野)'라고 불리게 됐지. 그러다가 가리와노(刈和野)가 됐고, 이중 초두머리(++)가 빠지면서 현재의 가리와노(刈和野)가 됐다고 전해지고 있어.

※ 나가야마 일족이 씨족신을 모셨던 줄다리기는 무로마치 시대(1338~1573) 중기에 실시됐다고 전해지며, 보존회는 설립 당시 줄다리기의 역사가 500여년 되었다고 홍보하였어.



'가리와노 큰줄다리기'는 939년에 반란을 일으킨 장군 '다이라노 마사카도'가 멸망한 후, 그의 자손이었던 '나가야마 일족이 가리와노 지역에 정착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해. 나가야마가 섬기던 씨족신이 시장을 수호하는 '시장신'이었는데, 그 시장신에 대한 제사로 줄다리기를 시작한 것이 오늘날 가리와노 큰줄다리기의 유래가 되었다고 해. 그리고 '가리와노 큰줄다리기'는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돼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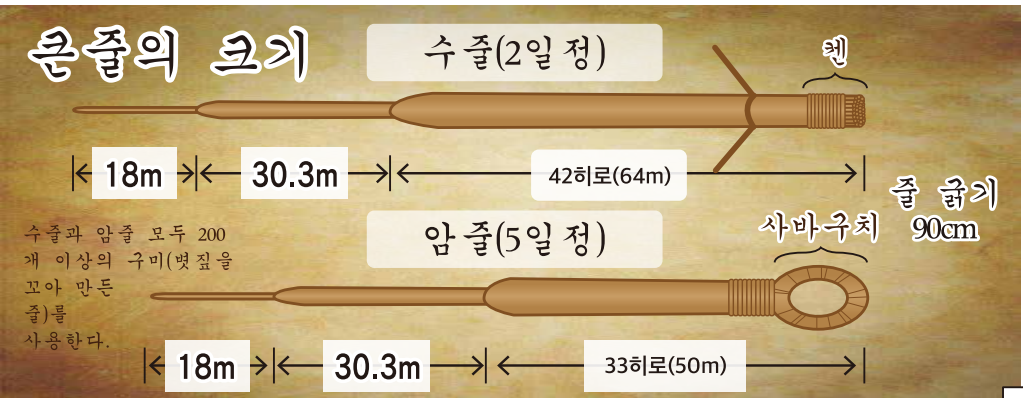




줄다리기는 가리와노 지역의 중심부인 '오마치 거리'에서 두 개의 마을로 나뉘어 진행되는데, 윗마을을 '2일정', 아랫마을을 '5일정'이라고 불러. 줄다리기를 진행하는 사람을 '건원'이라고 하는데, 행사의 책임자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어. 2일정과 5일정은 각 마을의 건원들이 책임지고 관리하고 있어. 예전에는 세습제로 부모가 건원이면 자녀도 건원을 했는데, 지금은 연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선발돼. 줄다리기 직전에 줄을 결합할 때가 우리들 건원이 가장 활약하는 때야.



그중에서도 가장 숙련된 건원의 지시를 통해 작업이 진행돼. 암줄에 수줄이 들어가 '결합'이 되면, 큰 목소리를 내거나 제등을 올리는 게 금지돼. 고요함과 긴장감 속에서 시합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기다리는 거지.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장. 1972
년에 보존회가 조직된
이후 4명이 회장을
지냈다. (2016년 기준)

다들 어서 오나라.

잘 부탁드립니다.

어는 술과고 퀴네.

안녕하세요.



가리와노 큰줄다리기에
흥미를 갖게 된 소.
며칠 후 큰줄다리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친구들과 함께
도서관에 왔습니다.

다이센시립 니시센보쿠 도서관



어, 회장님이다!

그랬구나!
좋아, 그럼
나도
큰줄다리기에
대해
알려주마.



오늘은
큰줄다리
기에
대해서
알아보려
고 왔어요.



어라?



큰줄다리기는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쇠 적이 없었어. 1972년에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가 조직됐고, 1984년 1월 21일에는 국가 중요무형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일본 최고라 불리는 이 큰줄다리기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하는 활동에 힘쓰고 있어. 큰줄다리기를 하는 오마치 거리는 먼 옛날 우슈 가도라는 천하의 공도였기 때문에, 당시에는 그날의 마지막 파발꾼이 지나간 후인 심야 시간에 줄다리기를 했어. 1950-60년대에 들어서면서 큰줄다리기가 마을의 관광사업 중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하거나 구경할 수 있도록 시작 시간을 오후 9시로 앞당기는 등 변화가 있었어. 개최일도 예전에는 음력 1월 15일이었는데, 1998년부터 2월 10일로 변경됐어. 큰줄다리기 줄은 2일정, 5일정 두 마을 모두 합쳐서 7천 단의 볏짚을 사용해 만드는데, 최근에는 벼 베기 작업이 기계화되어서, 볏짚 건조 작업을 하는 농가가 줄었기 때문에, 볏짚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래서 지역 내뿐만 아니라, 지역 외 농가에 의뢰하기도 해.



감사합니다!

어서 가자!



도서관에는 책과
자료가 많이 있으니
천천히 알아보렴. 실제
큰줄다리기를 할 때도
너희들을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오마!

※새해가 밝으면 약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참여한다.



하하, 이 사람은 농업※을 하고 있어서 경험이 길기 때문에, 줄 제작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

그렇다면 내가 '줄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주마!



애들아 어서 오렴. 견학 왔니?

네!!



보여 가자!

줄 만들고 있대!



1월 중순. 큰줄다리기 날이 기대되어 춤처럼 기다릴 수 없는 마사루와 친구들은 줄 제작을 하고 있는 작업소를 견학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시나고기'를 한단다. 시나고기는 '짚대를 훑는다'의 '시베오카쿠'가 변화한 것으로, 짚대에서 떼어 낸다는 뜻을 지니고 있어. 즉 벼에서 빗잎 등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작업이야.

[시베오카쿠 (稻を掻く)]
→ [시베오코쿠 (シベをコク)]
→ [시나고기 (シナゴキ)]



먼저, 벼를 벤 후 건조시킨 벼짚을 지역 내외에서 7천 단 정도 모으는 작업을 해.

※7천 단이라니 ... 상상할 수 없는 양이네...

크흠!



옛날에는 수작업을 해야 해서 무척 힘들었는데, 지금은 벼짚 치기도 기계화가 되었어. 하지만 이 벼짚 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도 점점 줄어들고 있단다. 전통을 지켜나간다는 건 직접 관련 있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려운 일이 상당히 많아.

아, 이 작업에서는 기계를 사용하는군요.

△벼짚 치는 망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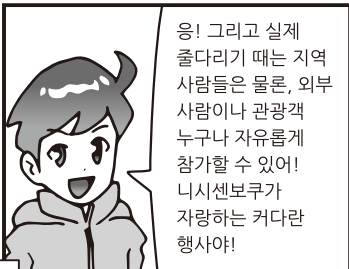
맞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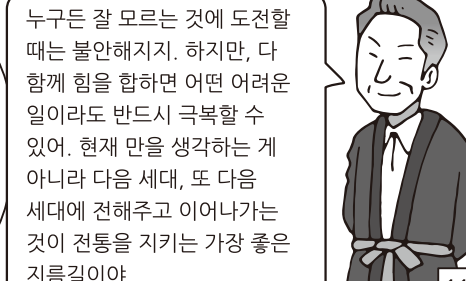


다음은 벼짚 치기. 벼짚 치기를 통해 벼짚이 부드러워지고, 더욱 튼튼하고 견고한 줄이 만들어지단다. 벼짚의 상태에 따라서 치는 법이 달라지는 섬세하고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여성이 하고 있어.

△벼짚 치는 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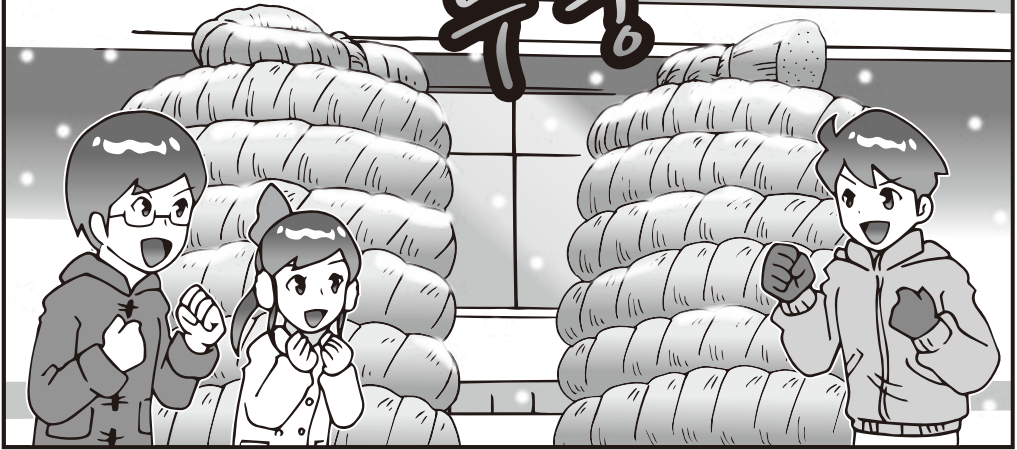
※벼를 7~8주 정도 모은 것을 1묵음이라고 한다. 10묵음이 1단이 된다. 7천 단의 벼짚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3ha(헥타르) 이상의 논이 필요하다.





2월 10일
큰줄다리기 당일

두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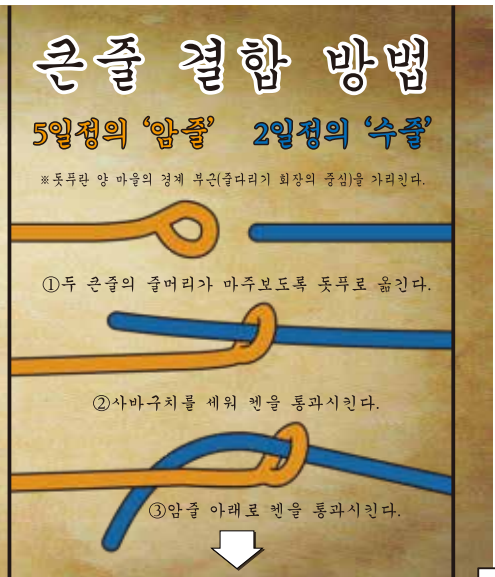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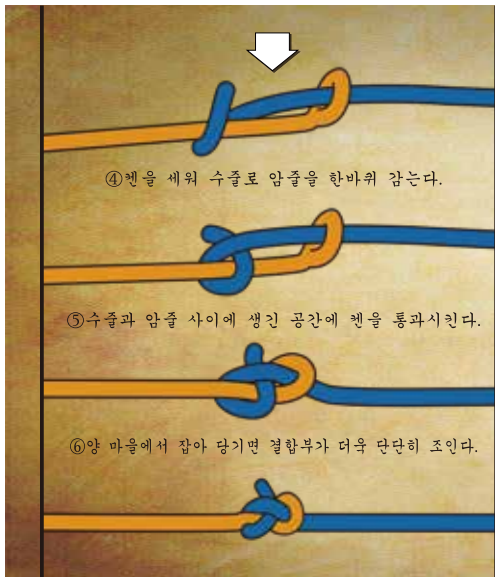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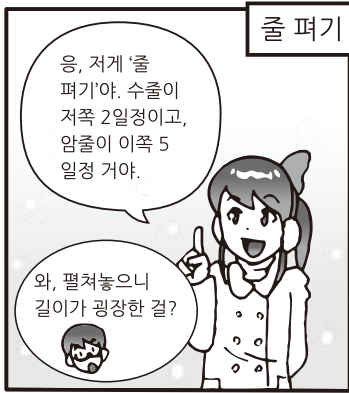
큰줄에 대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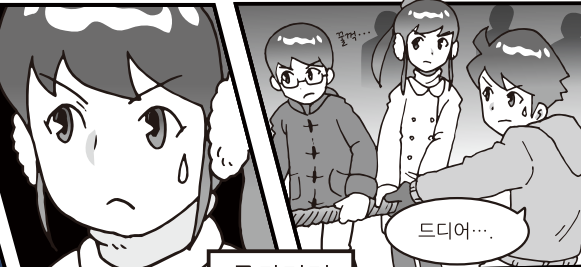
5일정의 '암줄'

구미 17개를 합쳐 만든 3개의 단위줄을 왼쪽으로 굴러 하나로 합친 후, 나무 모형 등을 중심으로 넣고 커다란 고리를 만든다. (17개×3개=51개의 구미) 이때 만들어지는 줄머리 부분을 '사바구치'라고 한다. 줄이 맞닿는 부분에 가장 많은 힘이 가해지는 만큼, 줄이 풀리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다. 암줄의 길이는 33히로(약 50m)이며, 이는 여성의 액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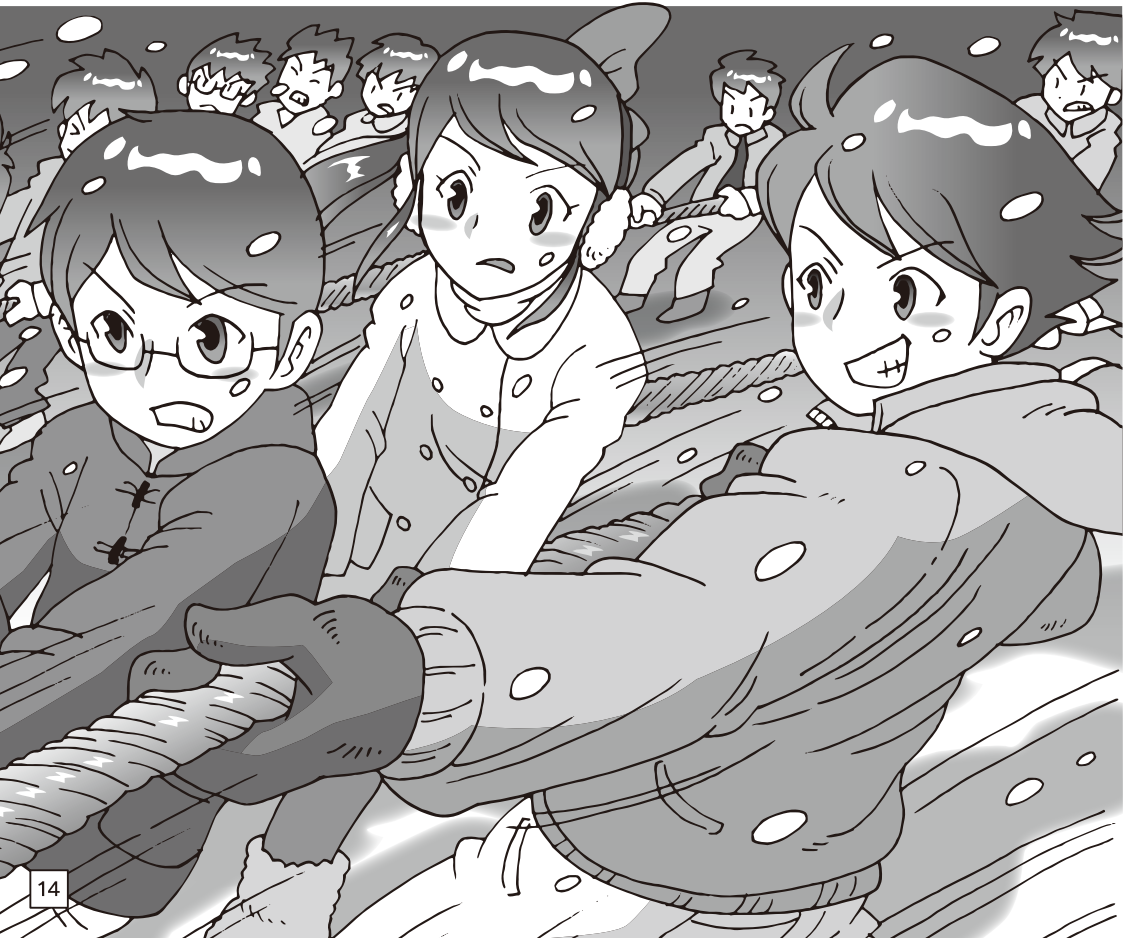
2일정의 '수줄'

구미 33개를 모아 일정한 간격으로 줄을 묶어 간다. 이 '단위줄'을 3개 만들어, 왼쪽으로 굴러 하나로 합친다. (33개×3개=99개의 구미) 이때 만들어지는 줄머리 부분을 '젠'이라 한다. 젠의 들레를 새로운 벗짚으로 감싸고, 마지막으로 커다란 가위를 이용해 깔끔하게 잘라내 완성한다. 수줄의 길이는 42히로(약 64m)이며, 이는 남성의 액년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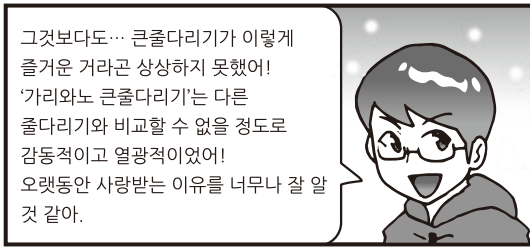
줄다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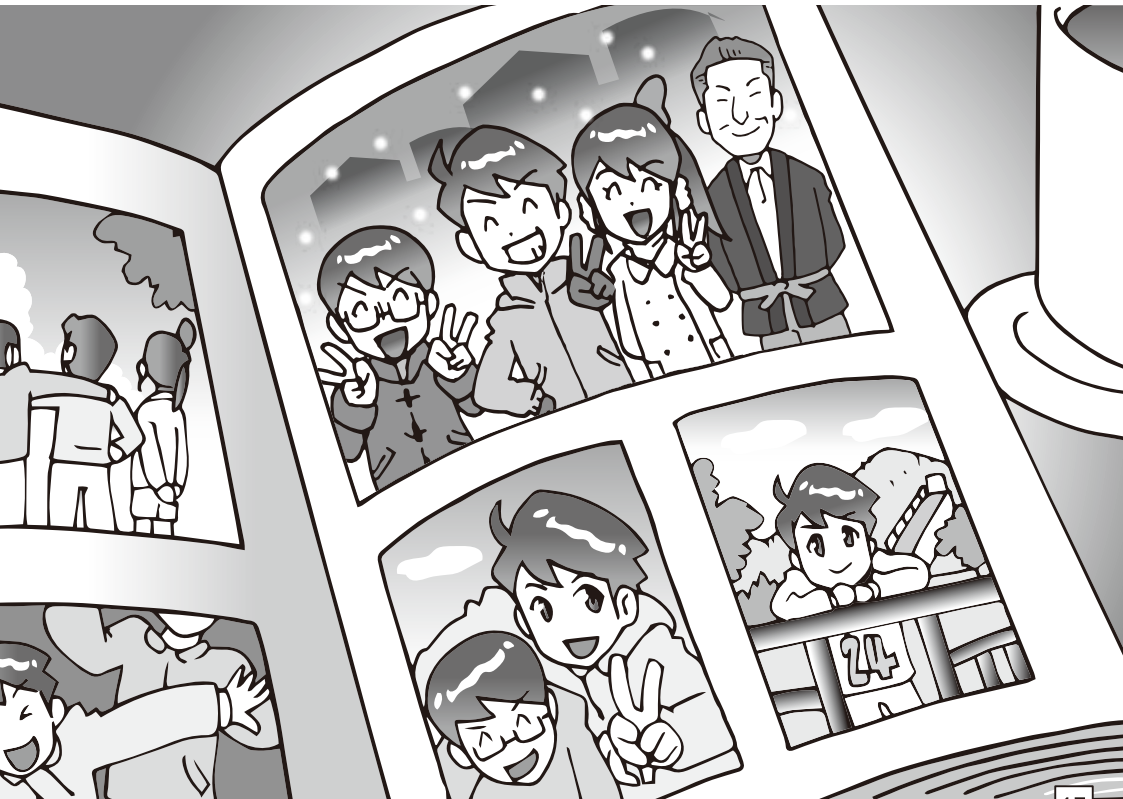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음? 그리고 보니...
쇼는 올해부터
도쿄의 회사에서
일한다고 했던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전화나 좀 해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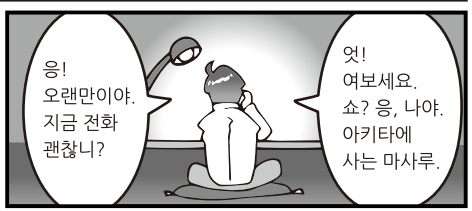


아하하! 맞아
맞아, 이런 일도
있었지! 쇼도
처음엔
무뚝뚝했지만,
나중엔 완전히
사이가 좋아졌지.
이야~ 그림다~!



아아!

아, 미안 미안.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말이야. 참가할
수 있을 것
같니?



응!
오랜만이야.
지금 전화
괜찮니?

엇!
여보세요.
쇼? 응, 나야.
아키타에
사는 마사루.



그렇구나. 그리고
보니 올해는 어쩔
생각이야?

도쿄 회사는
역시 바쁘니?

음... 그게 무슨
얘기야?

하하. 그렇지, 그런데로
지내고 있어.



물론이지!
당연히
참가해야지!

올해도 새로운
'친구'도
데려갈게!

교류 경위

당진시와 다이센시의 교류는 줄다리를 계기로 시작되었다. 2002년 한국의 대학원생이 당진군(당시)과 일본의 줄다리를 연구하기 위해, 니시센보쿠정(당시)의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에 자료 제공을 부탁하였다. 이듬해인 2003년 2월 10일, 대한민국 충청남도 당진군 소재의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에서 가리와노 큰줄다리를 관람하기 위해 방일하였다.

니시센보쿠정이 다이센시로 합병된 이후인 2006년 4월에는 다이센시장, 의장 및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보존회 등이 당진군을 방문하여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와 한중일 줄다리기 심포지엄, 한일 북 교류에 참가하였다.

이후, 2007년 8월 26일에는 ‘대한민국 당진군과 일본국 다이센시 간 우호 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고, 2015년 4월에는 ‘우호교류증진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호 방문을 거듭하며 교류를 돈독히 하고 있다.

이처럼 당진시와 다이센시는 줄다리가 맺어준 인연을 소중히 이어오고 있다.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



가리와노 큰줄다리기



다이센시 니시센보쿠지소
지역활성화추진실

〒019-2192 大仙市刈和野字本町5番地 (다이센시 가리와노 아자 모토마치 5번지)
TEL:0187-75-1111 FAX:0187-75-1228

◆표지의 ‘大’ 자 다이센시립 니시센보쿠 초등학교 6학년

2018년 5월 발행